



『슬픔의 틈새』

이금이 장편소설

주 제 어: #광복절 #사할린 #한인 #역사 #디아스포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정체성

분 류: 한국소설

작 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성지현(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이성균(경기대명고등학교), 윤이정(전 안양예술고등학교)

도서 소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할린으로 끌려간 조선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그린다. 주인공 단옥의 가족은 조국을 볼과 몇 시간 거리에 두고도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 소련, 한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 간다. 귀환선을 탈 수 없었던 사람들, 국적이 없어 대학과 직장을 제한받았던 이들, 서로 다른 국적 때문에 가족이 갈라져야 했던 상황은 역사의 잔혹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기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서로를 지탱해 준 우정, 소외와 차별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용기, 그리고 끝내 지켜 내고자 했던 ‘나의 뿌리’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

제목에 담긴 ‘슬픔의 틈새’는 역사의 압력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삶을 뜻하는 동시에, 그 틈새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빛과 숨 쉴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옥이 감내한 고통과 유키에와 나눈 우정은 그 틈새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버틸 힘이 되는 공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작품을 읽으며 “슬픔을 견디게 하는 틈새란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 소설은 잊힌 역사를 복원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을 던진다. 『슬픔의 틈새』는 청소년과 어른 모두에게 역사적 공감과 자기 성찰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 될 것이다.

학습 목표

1.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와 연결하여 성찰할 수 있다.
2.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할린 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국적과 정체성 문제 속에서 인물이 직면한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3. 등장인물들의 선택을 분석하며, 정체성과 생존 사이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토론할 수 있다.
4. 역사 속 타인의 고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감하고 디카詩 등 창의적 글쓰기로 표현할 수 있다.

교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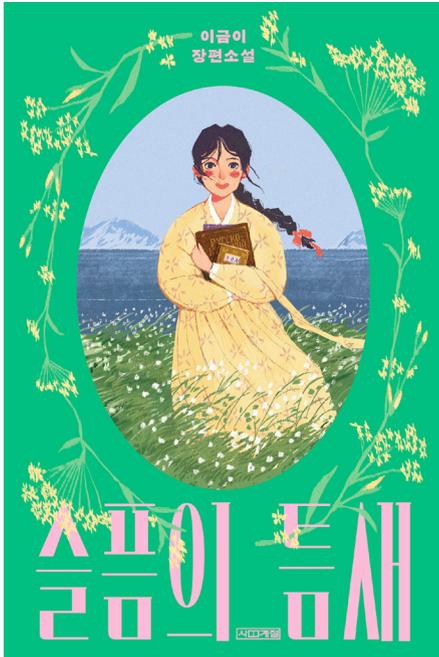
- [12화언01-11] 토의에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12문학01-04]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문학01-11]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8차시
독서 전	디아스포라(Diaspora)의 의미	1차시
독서 중	1부 : 소설 속 배경 탐구로 작품 이해하기	2차시
	2부 : 장면 분석으로 역사적 문제 논의하기	3차시
	3부 : 등장인물 선택과 삶의 의미 파악	4차시
	4부 : 작품으로 보는 사할린 한인의 삶과 역사 탐구	5차시
독서 후	국적 선택하기	6차시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7차시
	단옥에게 보내는 디카詩	8차시

1차시 | 디아스포라(Diaspora)의 의미

■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은 ‘파종(播種), 흩뿌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과거에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하지만 난민, 추방, 실향, 이민 등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 혹은 이산자들이 생겨나면서,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①제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

식민지 조선을 떠나야 했던 재일조선인, 고려인, 한국전쟁으로 인한 실향민과 이산가족, 산업화 시기에 독일로 떠난 노동자들까지. 한국사에 엄연히 존재했으나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게 잊힌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일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1. ‘디아스포라’의 의미 변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어원	과거	변화의 원인	현재
		①	
		②	
국어사전에서는?		③	
		④	

2.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조명하고 기억하는 영화를 조사해 봅시다.

한국인 디아스포라	영화 제목 (감독/장르/개봉일)	영화 줄거리	가장 공감한 관람평 또는 리뷰 내용
재일조선인			
고려인			
실향민 또는 이산가족			
독일로 떠난 노동자			

3. ㉠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의 주변에서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인물	변화의 원인	공간의 변화	삶의 변화

4.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디아스포라'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2차시 | 1부: 소설 속 배경 탐구로 작품 이해하기

1. 세계 지도를 참고하여 활동해 봅시다.



출처: <https://blog.naver.com/2232vwhang/223259260158>

1) 『슬픔의 틈새』 1부의 배경이 되는 '사할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곳이 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이주 장소가 되었는지 이유를 조사해 봅시다.

일본 정부의 관점에서	⇒	일본은 사할린을 '가라후토(樺太)'라고 부르며 식민지 지배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사할린의 풍부한 삼림 자원과 석탄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동력이 절실했다. 이때 일본 본토의 노동력은 부족했고, 비교적 저렴한 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또한 일본은 본토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소련 정부의 관점에서	⇒	
조선인의 관점에서	⇒	

선생님께 자료 조사 과정 중에 인터넷, AI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도에서 사할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것이 일본 정부, 소련 정부, 조선인에게 각각 어떤 이유로 이주 장소가 될 수 있는지 탐구할 때 지리적 위치의 의미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2) '사할린'은 오랫동안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시기마다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조사해 봅시다.

러일 전쟁 이전	⇨	본래 사할린에는 니브히족과 아이누족 같은 원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근대 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각자의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섬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은 남쪽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사할린 전체가 러시아 영토가 되었지만, 이는 잠시였다.
러일 전쟁 이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2. 영상을 시청하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Er-59J48AhQ?si=SmfLL5sSGM6YWMSH>

1) 영상에 나오는 '시모다 조약'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이 조약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해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봅시다.

조약명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	이주 조선인에게 미친 영향
시모다 조약	⇒	⇒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	⇒

2) 당시 소련 정부는 조선인들을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사할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영상을 참고하여 답해 봅시다.

3차시 | 2부: 장면 분석으로 역사적 문제 논의하기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가)

일본인이나 일본 호적에 오른 사람만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단옥과 유키에 가족 중 귀환선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치요와 유키에뿐이라는 말이었다. 정만은 물론이고 자식인 **㉠이사오와 시게루**도 해당이 안 됐다.

“이게 시방 말이유, 방구유. 조선 사람도 같은 일본 사람이네 하면서 창씨개명도 시키고, 징용도 끌고 온 거 아녀유?”

덕춘의 거센 분노는 선명했지만 정만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다. **㉡한 가족 사이에 금이 그어져 배를 탈 수 있는 사람과 탈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그 금은 깊고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정만은 치요가 당장이라도 유키에만 데리고 귀환선을 타러 떠날 것만 같아 불안했다. (161쪽)

조선인을 제외한 귀환은 마을 분위기도 바뀌놓았다. 마을엔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았지만 일본인 가정도 있고, 정만네처럼 조선인과 일본인이 부부로 사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런 줄 몰랐다가 이번 귀환 사업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일본인 남자는 온 가족이 귀환선을 탈 수 있는데도 조선인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만 떠났다. 반대로 일본인 아내가 조선인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밤새 사라진 집도 있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만 부부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덕춘과 단옥도 덩달아 신경이 곤두섰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던 마을은 순식간에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162-163쪽)

(나)

해방 후 조선은 반으로 나뉘었다. 남쪽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북쪽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대한민국에 속하는 남쪽 사람들이었다.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대한민국 수립에 따라 조선을 한국으로, 자신들을 한인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일상에선 조선과 한국이 뒤섞여 통용됐다. 사람들은 이제 조국이 당당하게 있으니 일본 귀환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낸 귀국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채, 1949년 7월 23일 일본의 마지막 귀환선이 코르사코프항을 떠났다.

10월 27일, 사할린 당국은 한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했다. 공산당 간부들은 한인을 대상으로 정치나 교양에 관한 선전 사업을 벌였으며 흑시라도 한인들이 귀환선을 타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했다.

㉢12월 20일, 한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들을 사실상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국적법을 제정했다. 한인들 중에는 배신감, 좌절감, 울분으로 뒤범벅된 상처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거나 술이나 노름,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생겼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귀환 사업을 끝낸 일본 정부는 사할린에 천 9백여 명의 일본인이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인은 2만 5천여 명에 달했다. 귀환선을 타지 못한 일본인이나 일본인 부모를 둔 아이들은 숨죽인 채 한인들 틈에 스며들고자 애썼다. (170-171쪽)

1) (가)의 ㉠에게 발생한 국적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일본, 소련 정부는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정부	㉠에 대한 국적 문제 책임	구체적인 방법
대한민국	⇒	⇒
일본	⇒	⇒
소련		

2) (가)의 ㉠에서 말하는 ‘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금’은 왜 값고 서늘하고 날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써 봅시다.

3) 다음 <보기>는 1948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국적법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나)의 ㉔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써 봅시다.

〈보기〉

1948년 12월 20일에 제정된 법률 제11호 국적법

[시행 1948. 12. 20.] [법률 제16호, 1948. 12. 20., 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제1조 본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

제4조 외국인이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외국인의 처가 아닐 것
3. 부모중 먼저 인지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4.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때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제5조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만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5.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제6조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에는 전조 제1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처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제7조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본법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그의 본국법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부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로서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때에도 같다.

제9조 외국인의 처는 부와 같이하지 아니하면 귀화할 수 없다.

(생략)

제12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
6.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때에 준한다.

제15조 귀화, 국적의 이탈과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부칙 <법률 제16호, 1948.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생님께 사할린 한인들은 조선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적법에서는 국적법을 속인주의에 따르면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왜 사할린 한인들을 사실상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국적법이 되는지 그 차이를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시의 국적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다면 사할린 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학생들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교무실에 있는 분들은 누구세요?”

“새로 온 교장과 교사야.”

“네? 그럼 우리 교장 선생님은요?”

“해직 처리되셨다. 이제부터 소련 정부에서 교장과 교사를 파견한다는 구나.”

“왜요?”

“교사들 자질이 부족하고…… 러시아어를 몰라서란다.”

장호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새로 온 교장은 고려인이었고 교사는 고려인과 북조선 사람이었다. 소련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을 소련 체제로 흡수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인 교사 중에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소련 정부는 파견 나온 **㉠고려인과 북조선 노동자들** 중에서 교사를 뽑아 학교에 보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보다 많이 배우셨대요?”

“뭘, 대학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많이 배운 거지. ……단옥아.”

장호가 말끝에 잠시 머뭇거리다 단옥의 이름을 불렀다. 주 선생이 아니라 “단옥아”였다. 단옥은 눈물을 참았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만둘게요.”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 말에도 **㉡단옥은 울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물었다.** 단옥은 학생으로서도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교사를 하려던 곳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큰땅배기 교사 아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장호는 단옥을 말리는 대신 말했다.

㉣“앞으로 여기서 살려면 소련말을 배워야 할 거야.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테니 우리 말과 글을 잊지 말아라.” (186-187)

1) ㉠이 사할린 한인 교사 대신 학교에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가 사할린 한인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해 봅시다.

2) 단옥이 ‘큰땅배기 교사’에게 느꼈을 감정은 무엇일까요? ㉠과 ㉡을 참고하여 ‘큰땅배기’라는 표현 속에 담긴 사할린 한인의 소외감과 차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3) 사할린 한인들, 고려인, 북조선인은 모두 한인(조선인)이지만, ‘같은 민족’으로서의 협력 대신 ‘체제와 국적’에 따른 갈등과 차별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봅시다.

4) ㉢을 근거로 당시 사할린 한인들에게 ‘한국(조국)’은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체성’의 관점에서 설명해 봅시다.

3.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단옥보다 5년이나 늦게 들어온 막심이 오늘 상사로 승진했다. 단옥은 자기 부서에서 두 번째로 고참인데도 최말단을 벗어난 뒤론 승진하지 못했다. 화가 나서 부서장에게 따지긴 했지만 그의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았다. 소련 국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 탓이었다. 유키에 또한 재봉 2반 반장이었으나 자신보다 경력이 짧은 소련인 직공들보다 월급이 적었다. 다른 한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은 남북이 분단된 채 3년 만에 끝이 났다. 대부분 남쪽에서 온 사할린 한인들은 북한과 동맹 관계인 소련의 국적을 취득하면 조국으로 돌아갈 길이 영 막힐까 봐 무국적 상태로 지냈다. 소련 정부는 인종 차별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자기네 국적을 가진 사람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대했다.

무국적자에 대한 제재는 훨씬 심했다. 무국적자들은 허가 없이 사할린을 벗어날 수 없을뿐더러 섬 안에서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주거지에서 15킬로미터 이상 벗어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니 무국적자인 학생들은 대륙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없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월급이나 승진, 휴가, 보너스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소련 국적 노동자들에게 한 달씩 주어지는 휴가를 무국적자들은 받지 못했다. 간혹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소련 국적을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인들 대다수는 온갖 손해를 감수하며 버텼다.** (227-228쪽)

- 1) ㉠처럼 사할린 한인들이 소련 국적을 취득하면 얻게 되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련 국적을 거부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선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위를 읽고 다음 표를 완성해 봅시다.

대상	국적	소련 체제에서의 대우	사회적 지위
고려인 / 북조선인	소련 국적 또는 동맹국 국적		지배 체제 대리 역할
사할린 한인	무국적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주민
사할린 잔류 일본인	일본 국적		패전국 국민으로서의 제한된 삶
소련인 / 소련 국적자	소련 국적		차별과 우대의 기준

3) 유키에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인 직공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등 차별을 겪습니다. 유키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세요. 이는 사할린 한인이 겪는 불이익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공통점	
차이점	

4) 당시 사할린에서 ‘무국적’이라는 법적 지위가 주는 불이익이 ‘외국 국적’이 주는 불이익보다 더 심했는지 자료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5) 조선인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윗글을 읽어 보면 소련이라는 새로운 강자의 지배 아래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비슷한 차별을 겪는 ‘역사적 아이러니’ 또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해와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4차시 | 3부 : 등장인물 선택과 삶의 의미 파악

1. 3부 '선택', '갈림길 1, 2' (245 ~282쪽)를 읽고 활동해 봅시다.

1) 각 인물의 선택과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인물	선택	이유
정만과 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으로 귀국 	-
유키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해옥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2) 인물들이 선택한 국적과 유·불리를 정리해 봅시다.

국적	인물	혜택이나 불이익
	용재, 유키에, 드미트리	-
	영복, 해옥, 광복	-
무국적자		-

2. 덕춘의 삶과 작품 제목의 의미를 연결 지어 파악해 봅시다.

1) 310쪽을 중심으로 덕춘의 삶을 주변 인물과 상황으로 정리해 봅시다.

국적	생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갑도 살지 못하고 사망 •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수교가 맺어져 편지 왕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사망

2) 덕춘의 죽음과 이후 상황을 토대로 제목 ‘슬픔의 틈새’가 어떤 의미인지 써 봅시다.

슬픔	이후 상황
덕춘의 죽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옥은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아이들을 혼내고, 진수와도 좋았다 나빴다 하며 살아갔다. • 해옥이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 해옥이 태어났던 때처럼 아기 냄새 섞인 행복이 방 안을 넘실거렸다.

3. <보기> '사할린 아이랑'을 참고로 '3부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내용으로

안에 가사를 만들어 붙시다.

<보기>

사할린 아이랑

정태식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풍파 사나운 바다를 건너
한 많은 남화태(南樺太, 남사할린섬) 정용 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철막 장벽은 높아만 가고
정겨운 고향길 막연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정치 개방 후 햇빛은 밝고
우리의 살림엔 경사가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할린 아이랑 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5차시 | 4부 : 작품으로 보는 사할린 한인의 삶과 역사 탐구

1. <보기>를 읽고 활동해 봅시다.

<보기>

(가)

“열흘 넘게 걸렸던 길을 세 시간도 안 걸려서 왔구나.”

단옥은 기차와 배를 번갈아 타며 일본을 거쳐 사할린으로 가던 길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유키에가 허탈해하는 단옥에게 웃으며 말했다.

“세 시간도 안 걸린 게 아니라 50년이나 걸린 거 아니야?”

“그러네. 50년 걸린 게 맞다.” (387쪽)

(나)

단옥은 다시 또 천륜을 끊어 놓는 한국과 일본의 결정에 마음이 상했다.

단옥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신들을 불쌍한 존재나 문젯거리로 생각하며, 시혜와 처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다.

단옥과 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강제 이주로 겪은 고통에 대해 온정이나 동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바랐다. 또한 이곳에서 살아낸 삶에 존중과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언제나처럼 그 책임을 일본 정부에게 미뤘고, 일본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보상만을 고집했다. (422~423쪽)

1) (가) 대화 속에 나타나는 '단옥'의 감정을 추리해서 써 봅시다.

2) (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나)를 참고하여 적어 봅시다.

2. <보기> 대화나 서술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인물들의 삶과 사할린 지역의 특성,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파악해 봅시다.

<보기>

- 그런데 “니들은 조선 놈이냐, 일본 놈이냐, 소련 놈이냐? 나는 당최 모르겠다.” (248쪽)
- 단옥과 유키에네 가족에는 북한, 소련, 무국적이 다 섞이게 되었다. 사할린에는 부부, 부모, 형제 간에도 국적이 다른 경우가 존재했으며 북한 국적은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다. (261쪽)
- 식탁에선 한국말과 소련말이, 한국 음식과 소련 음식이, 젓가락과 포크가 뒤섞였다. (341쪽)
- 소피아가 책을 단옥의 비석 앞에 놓았다. 『주단옥 일기』에 머물렀던 현수의 카메라가 박수 치는 가족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 러시아의 피가 모두 흐르는 소피아를 오래도록 비쳤다. (445쪽)

선생님께 제시한 대화나 서술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사할린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한인, 일본인, 소련인들의 삶의 애환과 사랑, 갈등과 협력 등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찾아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3. 세 세대 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두 어머니가 똑같이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은’ 이유를 적어 봅시다.

<보기>

• 덕춘과 단옥:

단옥은 나흘 내내 곁을 지켰는데도 엄마(덕춘)가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313쪽)

• 단옥과 주애:

주애는 그제야 기운을 차렸다. “엄마(단옥)가 유언 한마디 없이 떠나신 게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보니 엄마의 삶 자체가 유언이었던 거야.” (445쪽)

6차시 | 국적 선택하기

1. [모둠 활동: 국적 선택 상황 카드 만들기] 4~5명의 한 모둠이 되어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소련 국적 취득	일본 귀환	무국적 상태 유지
혜택			
제약			
핵심 키워드			

2. 개인 활동: “내가 단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선택	장점	단점
소련 국적 취득		
일본 귀환		
무국적 유지		
나의 선택	<p>따라서 나는 _____ 을 선택할 것이다.</p> <p>왜냐하면 _____</p> <p>_____ 때문이다.</p>	

3. [모둠 활동: 모둠의 선택] 모둠원끼리 자신의 선택을 발표하고 '모둠의 선택'을 해 봅시다.

우리 모둠의 의견은 _____ 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_____
_____ 때문이다.

선생님께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 속 인물의 고뇌를 공감하고,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려 보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나아가 '정체성과 생존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오늘날 난민·이주민 문제'와 연결 짓는 질문으로 확장적 사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차시 |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 글을 읽고 개인 탐구와 모둠 활동을 차례로 수행하면서, 사할린 한인의 경험을 비롯한 '과거의 기억과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이 하나 있소.”

단옥이 수남처럼 형형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기구한 운명과 불행, 고통, 슬픔을 듣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할린 한인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됐고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들도 나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 고마울 따름이요. 앞으로는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전할 때 우리가 모진 운명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슬픔의 틈새에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찾아내고자 애쓰며 살았다는 것 또한 함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소.”

[중략]

“처음엔 고향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또 여기 가족들에게는 고향 기억을 전해주고 싶어서 한 자 한 자 썼지요. 그렇게 시작한 일기가 어느덧 한평생 내 벗이 됐습니다. 한 때는 책으로 묶는 것도 꿈꿨지만, 요즘 세상에 다 늙은 사람 이야기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소.”

단옥의 주름진 얼굴에 쓸쓸함이 감돌았다. 해란은 한국에 돌아가면 출판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겠다

고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진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바람에 단옥은 기대를 접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박물관에서 출간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족들은 단옥이 그 사실을 알고 떠난 걸 다행스러워했다. 연구자들의 해제와 주석이 추가된 일기는 단옥의 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단옥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한국의 박물관에서 열린 출간 기념식에는 주효와 엘레나가 가족 대표로 다녀왔다. 남편에 이은 엄마의 죽음으로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주에는 한국에 갈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기념식에는 올해 한국의 대사관원에 들어간 소피아와 해옥 부부, 광복 부부, 제주도의 친척들이 참석했다. 해란과 현수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436-437쪽)

순서	단계	활동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 탐구</p>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 의견 기록</p>	<p>○ 단옥과 사할린 한인들은 왜 '기억'을 남기려 했을까요?</p> <p>_____</p> <p>_____</p> <p>○ 만약 이 기억들이 사라진다면 후손들과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p> <p>_____</p> <p>_____</p> <p>_____</p>

순서	단계	활동
모둠 토론	ㄴ 자신의 입장	○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까요?” □ 꼭 전해야 한다. □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 이유] (3가지 이상) _____ _____ _____
	ㄴ 질문 · 반론	자유롭게
	ㄴ 모둠의 최종 합의 도출	_____ _____
전체 토론	ㄴ 모둠 발표	자유롭게
	ㄴ 자유토론	자유롭게
	ㄴ 최종 합의 도출	_____ _____ _____ _____

순서	단계	활동
정리 및 성찰	↳ 개인 성찰	<p>○ 다른 모둠의 의견 중 인상 깊었던 점</p> <p>_____</p> <p>_____</p> <p>○ 내가 새롭게 생각해 본 점</p> <p>_____</p> <p>_____</p> <p>_____</p> <p>○ 오늘 토론을 마치며, 내가 다음 세대에 꼭 전하고 싶은 역사적 사건 하나와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선생님께 작가가 강조하는 지점은 단순히 ‘국적 선택’이 아니라 기억, 세대 간 단절과 연결,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틈새라는 더 넓은 주제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억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8차시 | 단옥에게 보내는 디카詩

■ 글을 읽고, '슬픔의 틈새'에서 살아온 '단옥'에게 디카시를 보내 봅시다.

『슬픔의 틈새』에서 '틈새'는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닌다. 주인공 단옥이 가족을 비롯해 전쟁 중 노역을 위해 화태로 떠났던 우리 동포들은 한반도를 지적에 두고도 귀국하지 못한 채 정치 없이 일본과 러시아, 우리나라와 북한이라는 4개국의 틈새를 떠돌며 살아야 했다. 이들에게 정치 체제와 언어의 차이는 물리적 국경의 벽보다 더 큰 막막함이었다. 삼엄한 냉전 체제와 각국의 대립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디에 의지해 귀국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든 적응해야 했고 우리말, 일본말, 러시아말의 혼돈 속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남아야 했다.

(중략)

이 책에서 틈새의 또 다른 의미는 슬픔과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안전지대, 친구라는 틈이다. 단옥이 길고 험한 주변인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유키에와 나눈 우정 덕분이었다. 사택촌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단옥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유키에는 단옥과 함께 탄광촌의 검은 탄가루 속에서 자라고 역사의 격랑을 겪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유키에는 일본에서, 단옥은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둘은 자매애로 뭉쳐 있다. 유키에의 한국인 양아버지, 양쪽의 피를 나누어 가진 동생들, 한인인 단옥네 가족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자신이 밟 디딘 곳이 더없이 좁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경계인이라는 점은 같았다. 화태라는 제3지대에서 둘은 견고하게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성장한다. 단옥이 『제인 에어』를 좋아했다면 유키에는 『폭풍의 언덕』과 『부활』을 좋아했다. 두 사람은 대혼란 속에서도 서로 마음의 기지가 되어 상대를 지켜준다. 언제든 숨을 수 있는 틈새가 되어준다. 단옥과 유키에네 가족 사이에 북한 국적, 소련 국적, 무국적이 다 섞여 있었던 것처럼 사할린에서는 부부, 부모, 형제 간에도 국적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다. 국적은 달라도 전쟁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 끊임없는 국가 간 세력 다툼의 희생자로서 존재 증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 어디에서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 같았다.

- 김지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바다를 건넌 여성들」 중

‘디카詩’란?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詩)이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 시(詩)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다**. 디카시는 사물이 주는 이미지를 통해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잘 포착해야 하며, 이러한 순간순간의 변화무쌍한 메시지에 반응하기 위하여 **대부분 5행 이내의 짧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카시’란 에스엔에스(SNS)로 소통하는 환경에서 누구나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詩)’ 놀이다.



「겨울, 시흥 갯골생태공원」

[예시 1]

숫대

민○○

속세의 황금빛 욕망이 무거워
더는 하늘로 날 수 없는 저 새들
인간과 하늘을 잇는 마지막 끈
끊어져 버렸네.



「텃밭 상추」

[예시 2]

우리 반

이○○

특별할 것 없이, 물만 머금어도 자란다.
특별할 것 없이, 마음만 주어도 자란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가, 서로 품고 자란다.
오늘도 자란다.
오늘도 잘한다.

사진 붙이는 곳

「 제목 」

시

선생님께 학생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해도 됩니다. 나아가 시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을 직접 찍게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활용해 스스로 사진을 찾게 한다면 더욱 진솔한 디카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